

Benzene, SM 폭등따라 동반상승!

FOB Korea 374-380달러 형성 ... 중동산 2만톤 유입 소식에 역전

Benzene 가격은 5월30일 FOB Korea 톤당 374-380달러로 37달러 급등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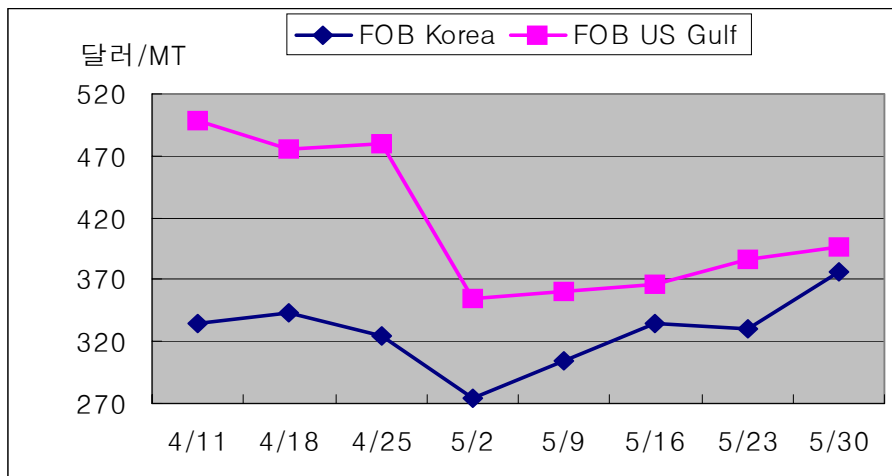
아시아 벤젠 시장은 SM 가격이 무려 105달러 폭등함에 따라 강세로 돌아서 주초에는 340-350달러에 거래됐으나 주말에는 380달러까지 상승했다.

SM은 일본 Asahi Kasei 및 삼성중합화학의 SM 플랜트가 가동을 중단함에 따라 100달러 이상 폭등했다. 삼성 및 Asahi 모두 에틸렌 크래커 트러블로 에틸렌 공급에 문제가 생겨 SM 플랜트 가동을 중단했다.

이에 따라 타이완에서는 6월 하순 거래물량 3000톤이 CFR 389달러에 거래됐으며, 동북아시아에서는 FOB Korea 가격이 405-410달러까지 올랐으나 곧바로 385달러 수준으로 하락했다.

중동지역에서 6월 거래물량 1만5000-2만5000톤이 동아시아를 향해 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.

Benzene 가격추이



한편, 미국의 벤젠 가격은 5월30일 5월 거래물량이 FOB US Gulf 갤런당 131.0-133.0센트, 6월 거래물량은 128.0-130.0센트로 약상승했다. 미국의 벤젠 계약가격은 갤런당 125.0센트를 형성했다.

<Chemical Journal 2003/06/03>